

# 항공우주산업 97실적과 98전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관리 이사 김 영 갑

## 매출액 1조2천억원 돌파

지난해 국내 항공우주산업 총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는 1조2,015억원으로 '96년에 비해 54% 신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5년간 (1992~1996) 연평균 증가율 26%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이중 항공분야는 KFP, UH-60 사업 등 군수물량의 증가와 일부 해외 수출 수요의 증가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11,710억원을, 우주분야도 다목적 실용위성, Globalstar 통신사업위성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역시 '96년 보다 대폭 신장한 약 305억원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군수물량과 세계 항공기 시장 호황으로 인한 민항기 부품 수요 증가로 '97년 대비 20% 증가한 1조 4,385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고정익, 1조 56억원 매출 올려

항공분야의 고정익과 회전익의 생산실적을 보면 고정익은 '96년 6,303억원에서 60% 신장한 1조 56억원을 생산하는 급성장을 기록하였고, 회전익은 '96년에 비해 12% 신장한 1,65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어 고정익 대 회전익의 생산비율은 '96년도와 같은 8:2로 나타났다.

이를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완제기는 계획된 군수 물량의 생산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한 5,603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여 '96년보다 6% 증가한 48%의 점유비를 나타내고 있다. 엔진의 경우 KFP에 장착되는 F100엔진과 UH-60의 T-700엔진 생산증가로 전년대비 71% 증가한 2,821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3% 증가한 24%의 점유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기체는 전년

(표 1) 국내 항공우주산업 매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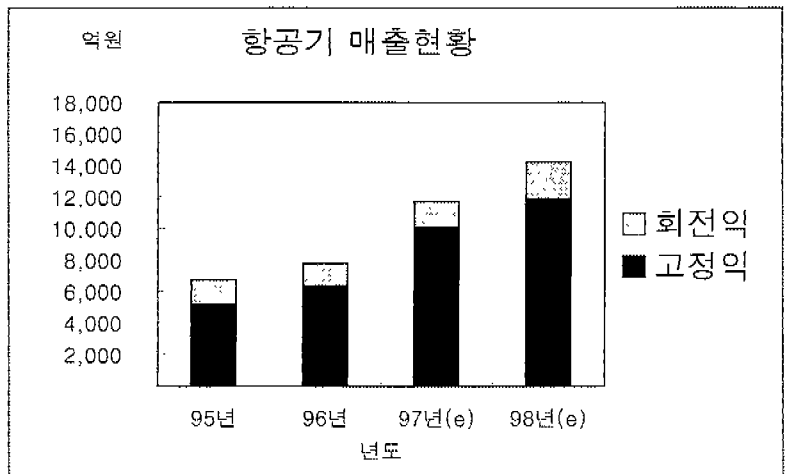
(단위:억원)

구분	95년	96년	97년(e)	98년(e)
항공	6,727	7,778	11,710	14,062
우주	25	38	305	323
계	6,752	7,816	12,015	14,385

(표 2) 분야별 항공기 산업 매출현황

(단위:억원)

구분	95년	96년	97년(e)	98년(e)
고정익	5,167	6,303	10,056	11,858
회전익	1,561	1,475	1,654	2,204
계	6,727	7,778	11,710	14,062
비율	7 : 3	8 : 2	8 : 2	8 : 2



대비 14% 증가한 2,360억원이 생산되었으나, 점유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7%가 감소한 20%를 나타내고 있다. 그외에 항공전자, 보기, 소재 등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약간 상회하였으며, 점유비에서는 각각 4%,

3%, 1%로 '96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재의 경우 두레에어메탈의 수출물량이 대폭 신장되어 전년보다 49억원이 증가한 54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인 것은 특기할 만하다. 우주분야는 다목적 실용위성 사업의 순조로운 위성체 제작사업과 Globalstar 통신사업위성 제작에 힘입어 '96년에 비해 183억원 증가한 305억원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 부문별 항공기 매출현황

(단위:억원)

구분	95년	96년	97년(e)	98년(e)
완제기	3,358 50%	3,280 42%	5,603 48%	7,244 52%
기체	1,930 29%	2,079 27%	2,360 20%	2,834 20%
엔진	978 15%	1,645 21%	2,821 24%	3,350 24%
항공전자	155 2%	404 5%	474 4%	165 1%
보기	302 4%	364 4%	398 3%	348 2%
소재	4 0%	6 0%	54 1%	121 1%
계	6,727	7,778	11,710	14,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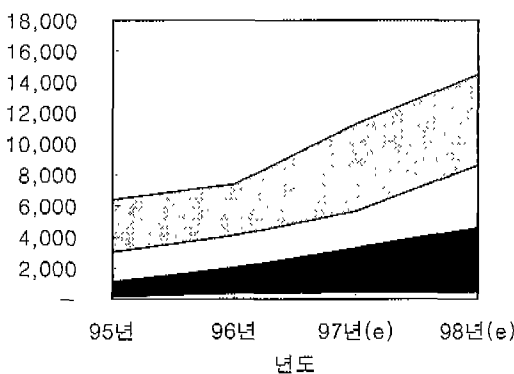
(표 4) 부문별 우주산업 매출현황

(단위:억원)

구분	95년	96년	97년(e)	98년(e)
위성체	13	32	215	223
발사체	12	5	0	-
지상체	-	1	90	90
계	25	38	305	323

올해는 고정익의 경우 KFP 사업등 계획된 군수물량 이외에 현대우주항공과 대한항공이 100인승 중형 항공기 B717-200 생산에 본격 참여함으로써 '97년 보다 18% 신장한 약 1조 1,858억원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전익도 기존의 UH-60의 물량과 민수분야에서 삼성의 SB427이 본격 생산됨으로서 '97년 보다 33% 신장한 2,204억원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주분야도 Globalstar 통신사업위성 제작으로 작년대비 5% 신장한 323억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해외 민수물량보다 국내 군수 물량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항공산업은 '99년 이후 생산물량에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98년 국방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5% 수준의 큰폭으로 축소될 예정으로 신규사업의 추진이 유보되고 기존사업도 예산 규모가 축소될 것이며, 민수 부분도 중형항공기 사업의 답보 상태로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산업 부문별 매출현황



투자부문, 토지/건물에 44%로 집중

지난해 투자액은 항공분야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5,950억원을, 우주분야도 3% 증가한 544억원 등 총 6,494 억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토지/건물은 전년대비 100% 증가한 2,877억원

# 분석 정책

의 투자 실적을 보여 전년보다 15% 증가한 44%의 점유비를 나타내고 있다. 설비, 기타분야는 전년대비 각각 8%, 230% 증가한 1,561억원, 136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점유비에 있어서는 각각 24%, 2%로 감소하였다.

또한 연구개발분야는 전년대비 60% 감소한 1,920억원을 투자하였고 점유비도 6% 감소한 30%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의 대부분이 시설투자(68%)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이는 현대우주항공이 B717-200 사업 등을 위해 서산 공장에 집중투자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생산의 선행 지표인 연구/개발분야 투자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61억원 감소한 1,920억원으로 집계되어 생산라인의 운휴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98년도에는 대규모 후속 Project의 부재, IMF 지원체제와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으로 '97년보다 약 60%가 감소한 2,389억원의 투자에 그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치는 현재와 같은 고금리 하에서 투자원금 차입에 따른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기존사업의 투자 계획도 재검토하거나 대폭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하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인력 전년대비 5% 소폭 증가

항공분야의 인력규모는 '96년 11,366명에서 4% 신장한 11,825명을, 우주분야는 다목적 실용위성, Globalstar 통신사업위성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96년 592명에서 21% 신장한 714명으로 총 12,539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기능직 인력이 6,109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개발인력은 1,556명으로 전체의 12%

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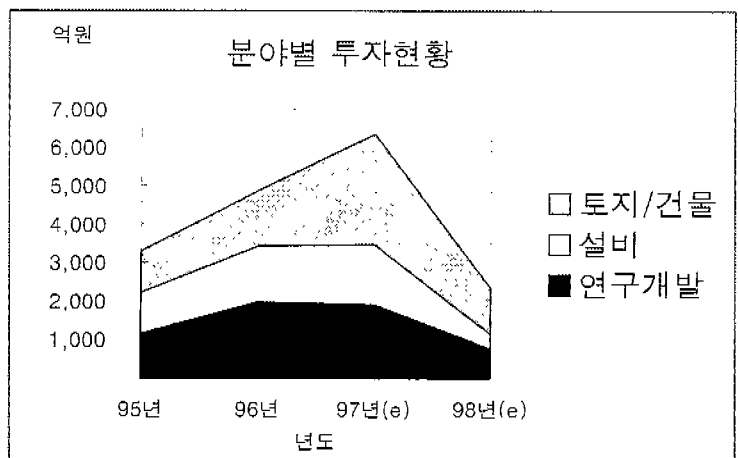
올해는 군수 사업의 마무리 단계라 생산인력의 큰 증감은 없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2% 감소한 12,296명으로 예상되며, 연구개발 인력은 점차 큰 폭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까지의 인력규모는 KTX-2, KLH 등 군수사업과 해외 민수 수출산업이 기존의 고용인력을 일부 유지시킬 것이나, 정부의 예산긴축으로 방위예산 삭감 및 정부 보조금 지원

(표 5) 항공우주산업 투자현황

구분	95년	96년	97년(e)	98년(e)
항공	3,342	4,382	5,950	2,352
우주	84	528	544	37
계	3,426	4,910	6,494	2,389

(표 6) 분야별 투자현황

구분	95년	96년	97년(e)	98년(e)
토지/건물	1,079 32%	1,441 39%	2,877 44%	1,204 50%
설비	1,070 31%	1,447 39%	1,561 24%	392 16%
연구개발	1,153 34%	1,981 40%	1,920 32%	759 32%
기타	123 3%	41 1%	136 2%	34 1%
계	3,425	4,910	5,994	2,389



규모 축소로 인해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사업여건이 위축되어 향후 신규고용 창출여력을 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업물량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결론적으로 '97년은 항공분야에서는 계획된 군수물량의 생산, 우주분야에서는 본격적 다목적 실용위성 제작에 힘입어 항공우주산업은 '96년 대비 54%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투자도 32%의 증가를 하는 등 활발한 투자 활동을 보여왔다.

(표 7)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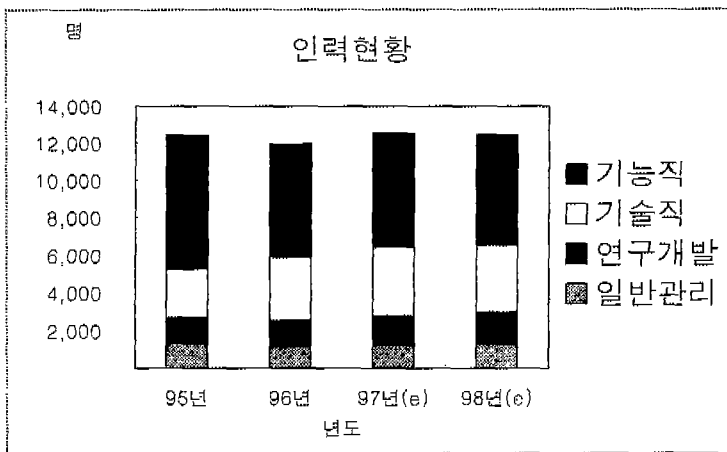
(단위:억원)

구분	95년	96년	97년(e)	98년(e)
항공	11,683	11,366	11,825	11,584
우주	741	592	714	712
계	12,424	11,958	12,539	12,296

(표 8) 분야별 인력현황

(단위:억원)

구분	95년	96년	97년(e)	98년(e)
일반관리	11,315	1,143	1,206	1,250
연구개발	1,356	1,393	1,556	1,545
기술직	2,591	3,370	3,668	3,590
기능직	7,162	6,052	6,109	5,911
계	12,424	11,958	12,539	12,296



올해까지는 고정익과 회전익 부문에서 확보된 군수물량과 B717-200 생산 참여로 20%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작년에 이어 항공우주 분야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격 개발착수에 들어간 KLH 및 KTX-2 사업의 경우 환율상승으로 인한 기술료 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장애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국방예산 감축 움직임에 따른 일부 사업 추진의 연기 움직임으로 장기간의 생산공백으로 인한 기존 시설과 인력의 유희화 및 대량 실업 등 고용불안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군수위주의 사업물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때마침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항공기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기계, 부품, 소재의 수출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주분야의 경우도 무궁화 4호 위성을 비롯하여 다목적실용위성 2호 사업 및 저궤도 이동통신위성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 또는 계획되고 있어 도약을 맞고 있으나, 환율상승 및 경기하강 등 전반적인 국가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아 투자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국가 금융위기로인한 IMF 관리체제하에서 각 기업들은 시설 및 연구, 개발투자를 억제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축소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효율성 극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는 항공우주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어느때 보다도 산·관·학·연 각계의 지혜와 협력이 요구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